

다산포럼



김성수
성균관대 학부대학 글쓰기 교수

코로나19 사태에서 남북관계를 떠올리다

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역병이 아니라 중국을 싸잡아 혐오했던 분들은 역지사지(易地思之)해 보자. 지금 특정 국가, 특정 지역, 특정 종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체를 다수 국가가 배척한다. 우리가 중국과 신천지를 비난하고 혐오했던 데 비례해서 지구라는 더 큰 공간에서 시나브로 배제되는 부메랑 효과는 빼어프다.

이때 필요한 것은 혐오와 배타가 아니라 포용과 연대다. 세월호(2014. 4. 16) 사건 당시 운동 구원파와 유병연에게 공격의 초점을 맞춰 정부와 지도층이 책임을 벗어려 했던 일이 기억에 선명하다. 그때처럼 지금의 사태를 중국이나 종교 또는 현 정부와 지도자에게 온통 책임을 떠넘기거나 혐오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은 마녀사냥이다. 최소한의 품위조차 내던진 일부 언론, 종교인, 정치인의 막말과 가짜뉴스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반면 국난을 극복하는 의뢰인과 행정 당국, 자원봉사자들의 자기희생과 노력에 국민적 지지와 성원·연대가 필요하다. 인류 공통의 휴머니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인 특유의 '할 수 있다'라는 위기 극복 의지가 지역감정과 정치 종교적 혐오를 뛰어넘었으면 한다.

그나저나, 국난에 버금가는 작금의 사

태에서 남북관계를 되돌아보게 된다. 평생 북한 문화예술을 공부하고 남북 교류 사업에 참여한 필자로선 1년 전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2019. 2. 28)의 아픔이 겹쳐 떠오른다. 정부의 통일 정책과 평화 시대를 위한 노력은 1년 만에 거의 물거품이 되었다. 그래서일까. 코로나19 사태로 갈라진 우리네 국민감정이 온통 혐오와 배타뿐이라면, 통일되었을 때 북한 주민을 어찌 대할지 걱정이다. 가령 '북한에서 코로나 발병자를 총살했다'라는 확인 불가 소문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퍼뜨리는 언론도 있다. 3월1일 자 노동신문을 보면 '비루스(바이러스) 전염병을 막기 위한 선전과 방역 사업 강도 높이 전개'란 제목으로 '의학적 감시 대상자'가 연 7000여 명 있다고 한다. 우리로 보면 '자기 격리자'를 근거 없이 총살했다는 식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도와줄 방안을 찾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남북한이 한반도의 동서(東西)처럼 한겨레요 같은 나라였다는 데서 출발하자. 같은 언어와 문자를 쓰는 혈연공동체로 서로 잘 통하라고 한다. 가령 북한 시인 박철의 시 '이 사람들 속에 내가 산다'(2019. 10)를 보면,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랑스러운 여대생의 모습이 그려진다. ("전략) 전통

차는 미덕의 향취를 신고 달리고/ 나의 생각은 그 향취 속을 달린다/ 자리를 양보했다고 처녀가 서서 가는가?/ 아니, 선망의 눈길에 떠받들린/ 고상한 도덕 그 방식에 앉아서 간다."

문학적 상상력에 관한 한 한반도의 남북에는 공통 정서가 남아 있다. 서울과 평양의 정치적 상상력은 지구 저 반대편 만큼 멀지만 때로는 위 시구처럼 통역과 번역이나 해석이 따로 필요 없을 만큼 가깝기도 하다. 분단과 냉전의 소용을 가로막아 이데라도 서로 내면의 소통을 조스스레 모색하자. 코로나19 사태로 여야와 수도권·지방이 합심하고 동서와 교계(敎界)가 화합하지 못한다면, 다가올 통일이나 동아시아 평화는 요원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광주·대전·서울에서 대구·경북으로 도움의 손길을 보내 달라. 내 처지가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우리네 인심이다. 또한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타자에 대한 온갖 혐담과 혐오를 버리고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이 바로 통일의 정서적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터이다.

청춘 특·특

제 소설의 저작권을 달라고요?



조서희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 2학년

문제가 된 저작권 양도 조항은 올해 생겨난 것이 아니다. 문학사상사는 수해 동안 선정된 작품들의 저작권을 양도받고 작가 본인의 출판물에 표제적으로 쓸 수 없도록 계약서를 작성해 왔다.

김금희 작가가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 수상 예정이었던 최은영, 이기호 작가 또한 수상을 거부했다. 작년 제43회 이상문학상 대상은 받은 윤이형 작가는 "수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중략) 앞으로의 활동을 영구히 중단한다"며 절필 선언을 했다.

수년간 지속해왔던 이상문학상의 불공정 계약에 많은 작가는 해시태그 #문학사상_업무_거부'를 달며 문학사상사에 맞서 연대하고 있다. '디디의 우산'을 펴낸 황정은 작가는 "문학사상사는 이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더는 작가들에게 떠밀지 마시고 제대로 논의하고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연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2월 4일 문학사상사는 "이상문학

상 진행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와 그와 관련해 벌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깊은 책임을 지겠다"며 "이번 사태로 상처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께 먼저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입장문을 올렸다.

논란이 된 저작권 양도와 표제작 규제 조항은 대상 수상작 최소 보호를 명목으로 '1년 출판권'으로 수정됐다. 올해 제44회 수상작 발표도 하지 않는다.

불공정 계약뿐만 아니라 문단 내 논란은 꾸준이 있었다. 2년 전 현직 판사가 국내에 성폭력과 관련한 미투(Me Too)를 제기하면서부터 여성 작가들은 #문단_내_성폭력'이란 해시태그로 성추행·성폭행 피해 사실을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작가 지망생, 신인 작가를 대상으로 한 기성 문인들의 갑질도 미투를 통해 고발됐다.

하지만 미투의 가해자들은 몇몇이 활동하고 있다. 반면 피해 사실을 고백한 피해자들은 낙인이 찍힌 채 가는 곳마다 그에 대한 질문을 받아야 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문단은 등단 경리, 학연, 사제 연으로 오래전부터 '그들만의 리그'였다. 문단 내에서 입지를 다진 전선배 혹은 출판사 고위직들이 자신들의 지인인 가해자를 그대로 고용하거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문단 개혁은 뿌리부터 잘라 내야 한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작가들을 대표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 한국소설가협회나 한국작가회의 등 작가들의 대표 집단으로 보일 수 있는 곳들이 있지만, 의무적 가입이 아닌 선택적 가입의 사법 단체일 뿐이다. 비회원인 작가는 그들의 보호마저도 받을 수 없다.

문학은 가장 진보적인 장르다. 때로는 은유적으로, 때로는 직접 사회를 말하고 인간에 대해 말해야 한다. 문학이 제 몫을 다하려면 문학은 창조하는 작가들이 자유로워야 한다. 우리는 더는 재능 있는 작가들을 잃으면 안 된다. 하루빨리 문단이 개혁되어야 할 이유다.

社說

신천지 진정 사죄한다면 방역 적극 협력해야

국내 코로나19 '슈퍼 전파'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어제 코로나 감염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감염자가 나왔다"며 "신자들의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정말 면목이 없다"며 취재진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큰절을 하기도 했다.

이 총회장은 "당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면서 "우리도 어떤 모임도 피하고 모든 장소를 폐쇄했지만 손발이 귀해 협조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선을 다해 정부에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감염은 밀집 예배와 폐쇄적이고 은밀한 포교 방식이 주 원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신천지 측은 코로나 확산에 큰 책임이 있는데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했다. 광주에서는 가장 유명한 포교 시설인 전남대 후문의 '아름다운 신천지' 카페가 교단 측이 제공한 명단에서 빠져 당초 광주시의 강제 폐쇄 명령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 그 예다. 광주일보 취재팀이 지난 주말 광주 지역 신천지 교회·예배당·선교센터 109곳을 둘러본 결과 대부분 주책이나 상가에 자리한 데다 학원·PC방·힐링카페 등 기존 공간이 그대로 끌려 주민들이 신천지 관련 시설임을 알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총회장이 직접 나서 협조와 지원을 약속한 것은 신천지 측이 제출한 신도 명단과 정부 제공 명단 사이에 많은 차이가 나고 이때문에 광주시를 비롯해서 여러 자치단체들이 신천지 측에 대한 고발 조치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신천지 측은 무엇보다 시설 및 신도 관련 정보부터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대구와 '병상 나눔' 이것이 '주먹밥 정신'이다

광주시가 대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증 확진자를 광주에서 치료하기로 했다.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실천하고, 달빛동맹으로 맺어진 형제 도시 대구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한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적극적인 의견 수렴 작업을 이어갔고 광주시의회·교육청·오월단체·상공인·종교·의료계·시민단체가 총망라된 '광주공동체' 특별담화문을 통해 대구 경증 확진자들을 위한 광주 격리 치료 방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대구의 '경증' 확진자들은 증상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빛고을전남대병원과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에 격리 입원돼 치료를 받게 된다.

이런데 대구가 대구를 위해 기꺼이 병상을 내놓기로 한 것은 5·18 당시 주먹밥을 함께 나누었던 '광주정신'을 실천하는 점으로 아름다운 행동이라 하겠다. 물론 이런 결정 이후 광주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온 만큼, 더 이상의 지역 사회 감염이 없도록 확진자 수송 과정에서 한 치의 소홀함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폼 지원이나 의료진 파견만으로는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대구를 돕기엔 역부족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적극적 의견 수렴 작업을 이어갔고 광주시의회·교육청·오월단체·상공인·종교·의료계·시민단체가 총망라된 '광주공동체' 특별담화문을 통해 대구 경증 확진자들을 위한 광주 격리 치료 방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대구의 '경증' 확진자들은 증상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빛고을전남대병원과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에 격리 입원돼 치료를 받게 된다.

이런데 대구가 대구를 위해 기꺼이 병상을 내놓기로 한 것은 5·18 당시 주먹밥을 함께 나누었던 '광주정신'을 실천하는 점으로 아름다운 행동이라 하겠다. 물론 이런 결정 이후 광주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온 만큼, 더 이상의 지역 사회 감염이 없도록 확진자 수송 과정에서 한 치의 소홀함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無等鼓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은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이 다른 자연 현상과 겹쳐 엄청난 파괴력을 내는 것을 말한다. 국내적 양상을 보였던 지카(중남미), 에볼라(서아프리카), 메르스(중동), 사스(중화권) 등 이전 감염병과는 차원이 다르다. 문제는 별다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장을 둔화한 세계 경제의 체력이 약해진 데다 그동안 세계적인 금리 인하로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일컫는 경제 용어로 진화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세계 증시의 시가 총액이 7000조

원 넘게 줄면서 경제에서는 '퍼펙트 스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86개 주요국 증시의 '시총(시가 총액)'은 83조1576억 달러로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하기 전 고점인 1월 20일(89조1564억 달러)보다 5조9988억 달러(6.73%) 줄었다. 이는 원화 기준으로 하면 7290조 원인데 한국 국내총생산(GDP) 1893조 원(2018년 기준)의 네 배 가까운 액수다.

특히 코로나19는 불과 3개월 만에 아시아(중국·한국·일본)는 물론 중동(이

란·유럽(이탈리아)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미국 등도 피해 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적 양상을 보였던 지카(중남미), 에볼라(서아프리카), 메르스(중동), 사스(중화권) 등 이전 감염병과는 차원이 다르다. 문제는 별다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장을 둔화한 세계 경제의 체력이 약해진 데다 그동안 세계적인 금리 인하로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일컫는 경제 용어로 진화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세계 증시의 시가 총액이 7000조

원 넘게 줄면서 경제에서는 '퍼펙트 스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86개 주요국 증시의 '시총(시가 총액)'은 83조1576억 달러로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하기 전 고점인 1월 20일(89조1564억 달러)보다 5조9988억 달러(6.73%) 줄었다. 이는 원화 기준으로 하면 7290조 원인데 한국 국내총생산(GDP) 1893조 원(2018년 기준)의 네 배 가까운 액수다.

특히 코로나19는 불과 3개월 만에 아시아(중국·한국·일본)는 물론 중동(이

'퍼펙트 스톰'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광)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고

인정과 도리



김유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감사실장

위했다. 일을 풀어가면서도 석원은 끊임없이 헤아릴 것이고, 가닥을 찢더라도 잘못을 알아채면 우길질하지 않고 곧바로 고칠 것이다. 어려움이 닥치면 숨기지 않고 터놓고 말하는 사람이나. 어려움을 여러 사람이 알게 되면 함께 풀고, 어떤 때는 느닷없이 그 해결책이 푼 뒤어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해보면? 아니지, 저렇게 해볼까? 석원은 혼자 구사령거리며 수수께끼 풀 듯 즐기면서 입다짐(결심)을 한다.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중얼거린 입다짐은 실천한다. 사람들이 석원을 믿고 돕는 까닭이다. '한 일'을 뽐내며 자랑하는 사람이 많은데, 석원이 한 일은 남들이 치켜세운다. '하지 않은 일'을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그러는지 그는 아쉬워하지 않는다. 그 바탕에는 '인정(人情)과 도리(道理)가 있다.

인정이란? '사람의 마음' 곧 남을 헤아리는 마음이다. 도리란? 사람의 일, 곧 마땅히 해야 할 바른 일이다.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마땅히 할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믿는다. 익숙을 챙기지 않고 바르게 하니까 사람들이 돕는다. 사람을 먼저 떠올리고, 할 노릇을 하니 믿음은 저절로 생긴다. 속 좁은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서로 뜻이 다른 지역 사람들과 만나면 '정치'와 '종교'를 빼고 말하자고 한다. 정치와 종교 이야기만 빼면 하하호호 웃으며 이야기가 잘 이어지고, 일도 잘 풀린다는 뜻이겠다. 그 말을 거꾸로 살피면, 정치와 종교가 서로의 앞길을 막고, 가장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로의 마음을 풀어주는 게 정치와 종교인데 오히려 가장 힘들게 한다.

정치와 종교에는 '믿음'이 있어야 서로 돕는다. 믿음이 없는데 서로 복돋아 주기까지 한다는 건 어찌만 풀어치도 없는 헛소리다. 그래서 종교가 말끝마다 '믿습니까?'를 붙이고, 정치가 '나를 믿어주라'고 악다구니를 쓰는지도 모르겠다.

종교에서는 기도를 한다. 기도는 바라는 일을 비는데, 빌기만 해서 바라는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 정치에서는 꿈(희망)을 말한다. 꿈은 여러 사람이 행복해지는 일인데, 입으로 떠벌린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기도와 꿈은 몸짓(실천)이 따라야 한다. 감나무 밑에 누워 흥시가 입속으로 떨어지지만 빈다고 흥시가 떨어지지 않고, 흥시가 떨어지더라도 얼굴은 뒤쪽박죽난장판이 되고 만다. 기도와 꿈은 어떤 일을 빌기보다는 '~하겠다'는 다짐이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뒤숭숭하다. 숨기니까 바이러스의 흐름을 알 수가 없고, 감추니까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졌는지 모른다. 어떤 일을 숨기고 감추는가? 몇

몇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을 때 숨기고 감춘다. 숨기는 일은 인정(사람의 마음)을 팽개치는 일이고, 감추는 일은 도리(사람의 일)를 저버리는 일이다. 인정과 도리 없이 출렁거린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풀리지 않는다.

꼭 정치와 종교에서만 그러지는 않는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숨기고 감추는 일은 꼭 떨어진다. 못된 짓이나 나쁜 짓은 몰래 해야 하니까? 못된 짓과 나쁜 짓은 터놓고 말하지 못한다. 세상에 숨기고 감추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숨긴다고 감춰지지도 않는다. 어려울수록 '터놓고' 풀이(해결책)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터놓고 말을 하는 석원이 믿음직스럽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남의 허물을 꼬집어 나쁜 말만 말만 하고 떠넘기는 사람(정치인, 종교인)은 복대잡이(지도자)가 아니라서 업신여겨진다. 힘들 때 제 잇속만 챙기면서 나쁜 짓을 부추기는 사람(언론)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니까 깔보이게 된다. 비난을 입삼는 일은 인정 이 아니고, 제 잇속만 챙기는 일은 도리가 아니다.

인정과 도리로 풀면 코로나 바이러스 뿐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도 그리 어렵지 않다. 인정과 도리가 몸에 스며 있어서 실천하는 사람들을 자랑하기 바쁘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이 선거에서 당선되면 좋겠다.